조선인학

사하게 되어 李씨는 6월 오후 일본으로 향해 떠나게 되었다.

이보다 먼저 전인 8월 1일자 본보의 사회면엔 원천단 기사가 실렸다.

「日本에서 朝鮮人大虐殺, 震災의 혼란을 틈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日本新潟縣中魚沼郡秋成村穴藤지역 信濃川의 信越電氣株式會社발전소공사에 모집되어 온 조선인 근로자의 참상을 알리는 기사였다.

「東亞日報」라고만 출처를 밝힌 이 기사는 국내에선 본보의 특종이었다(日本에선 7월 29일자 讀賣新聞이 최초로 보도했다).

본보의 특종기사에 국민들의 울분이 터져나오자 日帝의 朝鮮總督府는 강압수단을 썼다. 8월 1일자 본보의 발매를 금지하는 한편 신문을 압수해갔다. 그리고는 東京 內務省에 조회한 결과 東亞日報에 본보된 것과 같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현지경찰은 조선인 노동자(安永詰·36·京畿도加平군 달동)가 술에 취해 다리를 건너다 실족, 익사한 사건이 한번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조선인노동자에 대한 학대사건은 금시초문이라고 잡아뗐다. 당시 李특파원이 현지확인 결과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李특파원은 이곳에서의 第一印象이 어떻게 보였나.

—바가지는 고역위에 앉힌 한 하대의 채찍이 번개같이 빛나니 그들의 신세가 과연 얼마나 비참하랴. 아! 가련한 무리여. 너의 이름은 조선사람인가. …현재 없는 얼굴에는 눈물이 종횡한 뿐이오 갈증에 마른 가슴으로부터 인사의 말도 나오지 못하였다. 우리도 울고, 그도 울고 솔바람도 슬퍼하고 물소리도 목메었다. …아! 우리가 어찌하여 이날 이곳에서 어찌하여 그대를 만나게 되었는가」(李특파원의 현지추재에 만성상 날이 밝으면 사직하여 날이 아주 저물거가지가 한정이오, 그동안에 점심먹는 시간이 30분쯤 있을 뿐이오, 일이 바쁠때는 약간 교대를 시켜 밤새도록 일을 시키는 일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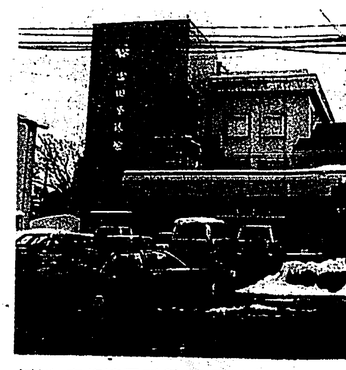
—사흘에 한번씩 쉬지 않으면 몸을 수습하여 기력을 지탱할 수가 없으므로 평균 한달에 22, 23일밖에 일을 못하는데 하루 쉬는데 받지 70전씩을 제하고는 22, 23일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고역을 해도 받는 공전에서 7, 8일 동안의 밥값을 제하는 바람에 결국 16, 17일분의 봉이 밖에 안된다.

—조선인노동자는 2월그믐에 남자만 48명이 덧죽이 3월 초순 거대한 계곡이 눈하에 붙속 다가왔다. 눈에 덮인 해발 8백41m의 萬野山, 그 앞으로 흐르는 中津川(信濃川의 지류), 中津川을 가로지르는 현수식다리인 穴藤橋. 벼랑처럼 서있는 萬野山꼭대기에서 두줄로 내려뻗은 導水管, 그리고 그들의 발전소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다.

행정지번 新潟縣中魚沼郡津南町大字 穴藤301. 69년전인 1922년8월14일부터 20일까지 본보의 李특파원이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채 발전소 공사장 돈꾼들의 참상을 확인했던 현장이다.

李특파원은 이곳에서의 第一印象이 어떻게 보였나.

—바가 바시는 고역위에 앉힌 한 하대의 채찍이 번개같이 빛나니 그들의 신세가 과연 얼마나 비참하랴. 아! 가련한 무리여. 너의 이름은 조선사람인가. …현재 없는 얼굴에는 눈물이 종횡한 뿐이오 갈증에 마른 가슴으로부터 인사의 말도 나오지 못하였다. 우리도 울고, 그도 울고 솔바람도 슬퍼하고 물소리도 목메었다. …아! 우리가 어찌하여 이날 이곳에서 어찌하여 그대를 만나게 되었는가」(李특파원의 현지추재에



本보 李相協특파원이 묵었던 窩田屋旅 년전 옛건물을 허물고 현대식으로 개 원내는 69년전 李특파원임행을 만났던 집주인 風巻토요할머니。

비참한 실상 報道되자

藤을 차례로 만났다.

後藤局長은 특히 『당시 신문에 전한바와 같은 사실이 다소 간이라도 있다하면 人道上의 큰문제이므로 성심성의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보의 보도이후 현지 大倉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69년전 본보의 新潟縣사건보도는 지금 이 지역의 역사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佐藤榮治씨의 「在日朝鮮人史研究」(1985년10월) 논문을 비롯, 新潟日報등에서는 본보의 당시 기사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穴藤현장을 동행했던 新潟市의 동포 張明榮씨(57)는 『이지역에는 佐藤토목산사건을 동포 근로자들이 학대를 받았던 현장이 아직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新潟縣사건」이 벌어진지 40여년후 新潟은 다시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10만여명의 在日同胞들을 北韓으로 실어나른 北送船이 떠났던 바로 이곳이었다.

「育英과수원 東亞꿈나무 20年」

1971년 100萬원 기탁받아 출발 現在「51億원거목」으로 자라
작년 불우中高生 장학금등 3億지출…2000年부터 본격 사업

「育英의 과수원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미래의 영재를 기르기위해 東亞日報社가 가꾸고 있는 「東亞꿈나무」가 뜻있는 독지가들이 주는 거름을 먹고 거목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東亞꿈나무」는 지난89년 처음 모금을 장학금으로 나누어 준 이래 올해도 많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나눠줄 계획이다。

꿈나무재단은 올해 연인원 2천60명의 중고생들에게 1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교육기관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연인원 2천1백9명의 학생에게 1억2천5백만원의 장학금과 교육기관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과실금이 늘어남에 따라 장학금과 교육기관지원금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東亞꿈나무」의 첫 모목은 지난71년 濟州도西歸浦시에서 글농장을 경영하던 故 吳遠坤씨(85년 작고)가 심었다。

吳씨의 1백만원이 첫 씨앗이된 「東亞꿈나무」는 그동안 20년이 지나며 수많은 독지가들이 일일이 새묘목을 심어 이제는 기탁금과 과실(이자)이 모두 51억1천2백9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東亞日報도 독지가들의 성의에 보답하기위해 東亞日報가 관리운영을 맡던 지난75년 앰뷸런스 1대를 주어온 독지가들도 이명의 앰뷸런스를 포함 82명의 개인과 10개단체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東亞日報 연중기획시리즈 「한국인診斷」으로 대한 업계의 큰관심을 일으킨 보보재질은 삼을 수상한 본보재질은 삼을으로 받은 1백만원을 얹은 유자녀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東亞꿈나무재단에 기탁, 수상의 기쁨을 더욱 뜻깊게 했다。

「東亞꿈나무 재단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외에 서기 2000년부터 본격적인 장학문예지원 장애자지원 학교건립등 기탁자의 목적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꿈나무장학금사업개시연도는 △吳遠坤 조흥장학금=2020년△裵龍禧鎭건립기금=2045년△金相敦장학금=2002년△吳昶昕 朱海浩 이종관 이수우=2000년△金重基 許承旭=2020년△許承旭=2008년△李珥雨=2083년△李慶徽 李春城=2003년 등이다。〈沈撰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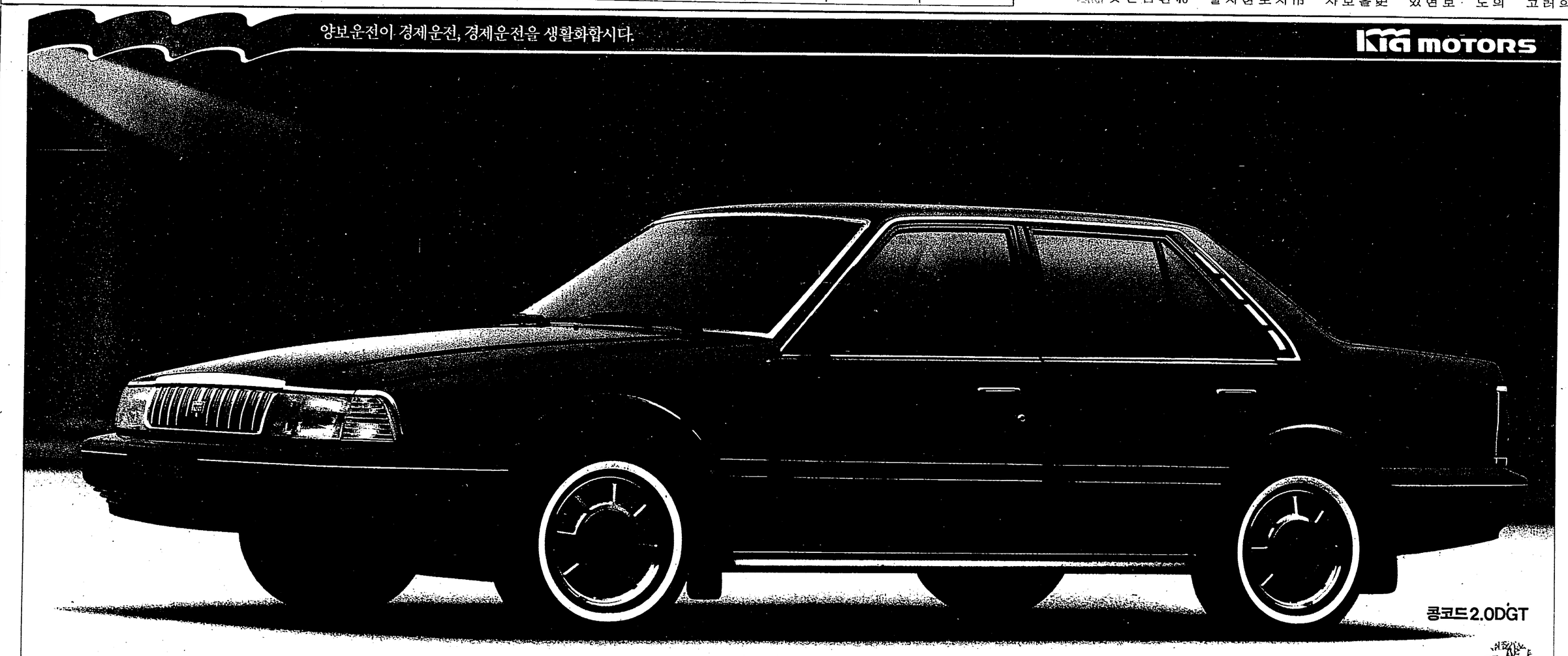
꿈나무奬學金 一覽表

(91. 3.15 현재)

기탁자	기금명칭	기탁연도	기탁금액	현재액
吳 達 坤	玄岩장학금	71. 3~87.10	17,001,168	142,741,648
吳 光 洙	裵龍禧鎭건립기금	75. 8	2,124,192	20,958,287
金 相 敦	學校설립 장학금	74. 4~77.12	17,000,000	91,651,859
吳 昶 昕	仁山興學會	72. 4~87. 3	7,459,904	27,309,842
	仁山育英種德會	77. 4~84. 8	96,305,725	244,670,376
	仁山愛心匡濟會		96,302,725	244,670,376
	仁山崑澤育英會		98,302,725	225,849,220
	吳昶昕씨 計		106,302,725	233,691,408
朱 海 浩	拔術人후세장학금	77. 9	(397,216,900)	(948,881,380)
金 重 基	장학금	78. 6~88. 3	2,971,180	17,771,238
許 承 旭	援護대상자장학금	78.11~85.12	25,000,000	52,866,315
李 柱 現	水南장학금	80.11	2,000,000	5,540,057
朴 嬅 實	정박아 장애자 지원	80. 4~90. 5	10,000,000	26,216,152
李 璟 雨	장학금	83.12~90.12	13,596,603	33,871,866
金 敬 爛	〃	84. 5~86. 2	10,578,000	14,641,352
李 愚 馥	盲聾唖장학금	85. 4	6,000,000	10,755,409
李 春 城	장학금	85.12~86.12	10,000,000	17,006,169
기독교여성協	〃	85. 5~86. 4	20,000,000	30,200,354
崔 在 成	기술인장학금	85. 5	4,200,000	7,220,161
姜 泰 旭	신체장애자장학금	85. 6	1,000,000	1,759,840
金 成 植	장학금	85. 6	2,000,000	3,496,961
高 愚 喆	〃	84. 5	1,000,000	1,741,799
金 榮 昌	〃	85. 2~91. 3	500,000	977,816
尹 永 坤	〃	85. 8	850,000	1,086,761
洪 炳 宇	〃	85.10	105,970	179,895
키와니즈부인회	〃	86. 1	200,000	335,438
姜 榮 煥	〃	86. 2	100,000	164,002
金 鍾 運	장애자장학금	86. 3	100,000	162,642
金 寅 培	고아장학금	86. 4	200,000	321,588
龍 尙 郁	日陽장학금	86. 5~91. 2	1,009,298	1,619,026
李 俊 珠	장학금	86. 6	9,200,000	11,692,294
張 炅 錫	〃	86. 6	1,000,000	1,576,217
朴 吉 雄	〃	86. 8	1,000,000	1,549,103
崔 蓮 淑	〃	86. 8	100,000	154,692
吳 洲 龍	〃	86.10	10,000,000	15,149,160
田 溶 燦	〃	86.12	1,000,000	1,503,649
朴 吉 順	〃	86.12	1,000,000	1,503,649
南 濟 鎬	〃	87. 2	1,100,000	1,613,393
韓 東 鐵	신체장애자장학금	87. 3	1,000,000	1,461,543
康 合 成	〃	87. 3	100,000	145,458
金 惠 禎	장학금	87. 4	5,000,000	7,231,851
李 鍾 春	〃	87. 4	1,000,000	1,443,200
誠信女大실습생	〃	87. 5~90. 5	6,000,000	7,595,821
반석희	신체장애자장학금	87. 6	100,000	141,337
第18期司法研生	장학금	87. 9~91. 1	550,000	702,316
金 學 實	〃	87.11	100,000	130,151
嚴 正 坤	〃	88. 1	1,000,000	1,282,113
	〃	88. 3~90. 4	700,000	836,578
吳 一 鎬	〃	78. 3	500,000	2,319,964
李 鍾 振	〃	80.11	70,000	166,547
李 賢 守	신체장애자장학금	84. 4	324,364	640,357
李 鍾 一	장학금	85. 7	200,000	342,240
李 明 淳	富餘人유자녀장학금	85.12~90.12	13,000,000	16,472,166
李 明(龍頭洞)	장학금	87. 2	500,000	732,975
金 福 喜	〃	88. 3	10,000,000	12,018,215
金 世 熙	〃	88. 6	1,000,000	1,324,588
趙 基 順	〃	88.11	1,000,000	1,265,842
金 尙 彬	〃	89. 4	1,000,000	1,217,511
姜 章 五	〃	89. 5	2,000,000	2,412,664
金 正 淵	〃	89. 5	200,000	241,606
林 七 鎬	〃	89. 6	1,000,000	1,197,490
崔 乘 順	〃	89.10	50,000	54,584
崔 泰 涉	〃	89.10	10,000,000	11,528,330
印 喬 明	〃	89.11~90.12	500,000	534,467
林 東 善	〃	89.11	1,000,000	1,147,730
玄 濟 憲	〃	89.11	3,500,000	4,007,925
金 三 圭	〃	89.12	1,000,000	1,132,261
成 樂 天	〃	89.12	1,000,000	1,132,261
金 淵 哲	〃	90. 2~91. 3	1,400,000	1,450,999
洪 龍 喜	〃	90. 2	1,000,000	1,114,874
秦 永 昊	〃	90. 3	1,000,000	1,114,453
丁 泰 中	신체장애자장학금	90. 4	1,000,000	1,104,469
李 明(井州)	〃	90. 4	1,000,000	1,104,469
李 文 世	장학금	90. 4	1,000,000	1,104,412
서 길 수	〃	90. 4	50,000	52,732
金 珠 任	〃	90. 4	1,000,000	1,095,194
한 윤 구	〃	90. 4	1,000,000	1,095,148
황 민 하	〃	90. 4	20,000	21,064
申 喜 晶	〃	90. 4~90.12	200,000	209,681
辰一장학회	〃	90. 4	100,000	109,654
虎岩라이온스	〃	90. 5	500,000	542,829
吳 明(永興)	〃	90. 5~90.12	1,000,000	1,042,704
李 鍾 官	소년소녀가장 교육자유자녀장학금	90. 5	200,000	217,177
金 利 錫	장학금	90. 8	700,000	710,067
朴 東 圭	〃	90.11	100,000	100,000
한국인진단립	언론인유자녀장학금	90.12	1,000,000	1,000,000
卞 秀 鉉	장학금	90.12	50,000	50,000
朴 熙 書	〃	90.12	2,000,000	2,000,000
金 光 成	〃	91. 1	200,000	200,000
吳 明(浦洞)	〃	91. 1	200,000	200,000
李 斗 煥	〃	91. 1	1,000,000	1,000,000
白 楊 會	〃	91. 2	9,000,000	9,000,000
이 전 흐 름	〃	91. 2	1,000,000	1,000,000
이 보 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91. 2	1,000,000	1,000,000
이 수 우	등 아꿈나무재단	91. 2	100,000	100,000
東亞日報社	〃	85. 5	300,000,000	3,510,080,766
權 燮 宗	〃	86. 5	2,298,770,210	
총 계			3,265,597,789	5,112,900,797

양보운전이 경제운전, 경제운전을 생활화합시다.

KIA MOTORS



신선한 품격으로 다가온다.

名車—新型「콩코드」

새로운 모습, 정평있는 안전도, 이제 부담없이 名車를 만나십시오.

- 정통세단의 클래식한 본네트와 고급몰딩
- 유럽감각의 신형 라디에이터 그릴
- 포그램프 내장 스타일리쉬 헤드램프
- 안전성과 품격의 충격흡수식 림범퍼
- 일체형 후면처리로 세련된 리어피니셔
- 범퍼일체형 감각의 슬림형 사이드프로텍터
- 안락한 최고급 시트와 산뜻한 디자인
- 첨단도장공법으로 적용된 마이카도장
(Brave Blue, Mellow Burgandy)

탁월한 성능
- 첨단 EGI엔진으로 이룩한 175.4km/h의 최고속도
- 시속 100km 도달시간 13.1초의 발진가속성능
- 편의성과 기능을 한차원 높인 첨단전자두뇌의 'ETWIS'

인간존중의 안전성
- 측면안전을 강화한 도어내장 강철후레임의 임팩트바
- 속도감응 오토도어록(DGT), 3중 충격흡수범퍼, DPCV브레이크

1톤 上의 수퍼세단

CONCORD

祝 東亞日報 創刊71周年

긴급 기동써비스 안내
- 서울(02) 784-1212, 강남(02) 448-1212, 강북(02) 774-8770
- 경기(0345) 402-1212
- 대전(042) 627-1212
- 대구(053) 753-8118
- 부산(051) 643-4346
- 광주(062) 528-1242

- 콩코드 1.8GTX : ₩9,973,000
- 콩코드 2.0GLX DGT : ₩13,592,000
- 콩코드 2.0GTX : ₩11,434,000 ※오토매틱(4단) : ₩1,100,000 (선택품목)

정부공인 시가지 주행연비
- 콩코드 1.8GTX: 12.87km/ℓ(1789cc, 1190kg, 수동 5단)
- 콩코드 2.0GTX: 11.36km/ℓ(1998cc, 1150kg, 수동 5단)

기아자동차

사용강력
남대문 778-9600 서울역 312-3754 신당 237-1181 을지로 268-0071 대원로 757-0607 퇴계로 273-0038 용산 792-0011 원호로 702-0077 마포 719-9111 서교 332-3702
신촌 333-2955 은평 353-5400 종로 377-2181 성동 244-7799 성북 763-5573 중로5가 765-4383 도봉 907-0051 강원 982-9661 상계 933-0051 대농 494-4249
동대문 925-0301 청량리 967-5590 석관 960-0251 장안 242-1541 사running 808-1011 관악 887-0101 상도 841-1676
서울강남
사당 587-1691 강서 696-5660 화곡 692-5333 목동 646-6888
산림 848-0271 신도림 866-8151 구로 867-3121 개봉 686-4231 개포 553-2884 대북원로 553-1147 서초 553-1011 교대역 587-6381 강동 409-1101 길동 473-0104 잠실 414-1048
강남 542-3176 반포 593-0991 영등 540-5915 청담 543-0654 개포 553-2884 서초 553-1011 교대역 587-6381 강동 409-1101 길동 473-0104 잠실 414-1048
천호 488-9150 송파 419-5617 여의도 782-7321 오금 449-0762
경기지역
광명 688-8051 한당 64-8566 일산 976-1056 금촌 941-1117 문산 52-9911 구리 67-2972
천호 488-9150 송파 419-5617 오금 449-0762 광명 688-8051 한당 64-8566 일산 976-1056 금촌 941-1117 문산 52-9911 구리 67-2972
양평 71-2468 안천 885-8960 구월 429-0155 동원 434-8271 주안 431-8320 석남 576-7594 작전 528-8884 부천 662-4151 고강 677-9741 김포 84-2900
검단 83-1678 연국 665-5661 감외 2-3121 수원 34-3613 동수원 211-6501 북수원 48-6950 평택 54-4511 송탄 64-7891 오산 374-2220 용인 33-3101 안성 2-3900
성남 757-5381 모란 751-1804 이천 2-3436 신장 792-2060 여주 2-3392 광주 64-4941 안양 46-3301 군포 56-1351 반산 45-3601 안산 86-5245
외장부 45-3019 등두천 62-4634 포천 33-1925
강원지역
춘천 33-1058 동해 33-2287
주문진 661-2555
충청지역
대전 623-8031 유구 253-8031 서대전 525-8031 남대전 255-8031 유성 822-5404
삼척 72-9223 속초 33-1058 대덕 52-3766 동해 33-2287 주문진 661-2555 충청지역 대전 623-8031 유구 253-8031 서대전 525-8031 남대전 255-8031 유성 822-5404
공주 55-1501 대천 32-1201 논산 2-2206 조치원 62-0501 금산 53-5031 부여 2-4277 서천 951-4554 신탄진 92-1989 청안 63-2931 서천안 567-7131 서산 62-2861
당진 2-4713 온양 43-8006 홍성 32-2890 예산 33-2311 장항 43-0281 청주 53-4701
서청주 66-8811 충주 42-8401 제천 2-6700 죽전 33-2189 증평 36-2177
용성 72-1348 영등포 42-0040 보문 2-3585 진천 32-1991 단양 423-2700 합덕 363-0563
전라·경북지역
전주 254-2265 서전주 223-3570 남전주 87-6301 남원 32-6230
이리 855-7277 정주 535-2945 군산 43-5600 김제 45-0444 부안 84-7924 고창 64-2077 합업 862-0471 광주 526-7801 서광주 364-8081 남광주 671-2787
광산 942-6455 담양 83-4133 나주 32-9941 영광 53-6500 목포 43-5152 강진 33-0600 해남 34-8911 진도 42-7188 무안 454-4454 순천 53-2121 여수 43-2020
벌교 857-1012 고흥 35-7500 광양 762-1515 여천 82-3432
대구·경북지역
대구 754-6983 동대구 754-6983 서대구 561-6771 남대구 253-0091 북대구 354-3881 중앙 422-4661 동구 958-5201
수성 766-7550 반야월 961-0086 칠곡 634-3848 왜관 254-1081 대경 624-1845 경산 811-0988 영천 32-3334 현풍 614-2010 구미 52-5341 김천 33-3500 성주 2-9210
안동 54-5401 영주 2-2413 상주 34-1891 점촌 2-2889 예천 654-3113 의성 2-2000 진보 72-1995 포항 73-2613 경주 42-1789 영덕 2-2918 울진 82-2870
부산·경남지역
보수 244-4404 대천 646-8545 양정 82-7571 관현 515-7201 문부 463-7331 사천 633-0850 사송 204-7331 옛도 414-8585 부산 645-8585 밀일 645-2201
수영 756-3601 해운대 742-0061 기장 361-1990 동래 866-1001 금정 514-5001 공사 529-1011 사상 325-1811 구포 336-7811 김해 33-1224 밀양 354-3231 함현 31-0050
진영 43-5501 부일 817-2501 대신 248-6051 장림 262-5401 울산 76-6300 중울산 98-2651 남울산 69-9922 언양 63-1756 양산 82-5603 미산 93-6611 산자산 47-9741
창원 82-4701 진해 43-4989 대청 94-3453 김해후 46-9141
서귀포 32-8611 제주 53-8501